

성추행 당한 여중생에 대한 가족치료

박 태 영(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 / 박 소 영(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가까운 친척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기록을 사례 분석하였다. 상담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에 걸쳐 총 10회로 진행되었으며, 여중생과 어머니, 아버지, 언니, 친척 아줌마와 아저씨가 상담에 참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담의 축어록을 원자료로 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사례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 회기 별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개념들에서 핵심개념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연구결과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한 원인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으로는 ‘편들어 주지 않는 부모’와 ‘대화의 단절’이 추출되었고, 상담 후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개념으로는 ‘편들어 주는 부모’와 ‘성추행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 ‘두려움의 사라짐’이 추출되었다. 변화를 이끈 상담자의 개입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으로는 ‘분노 표출을 위한 개입’, ‘가족의 대화방식에 대한 개입’,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개입’이 추출되었다.